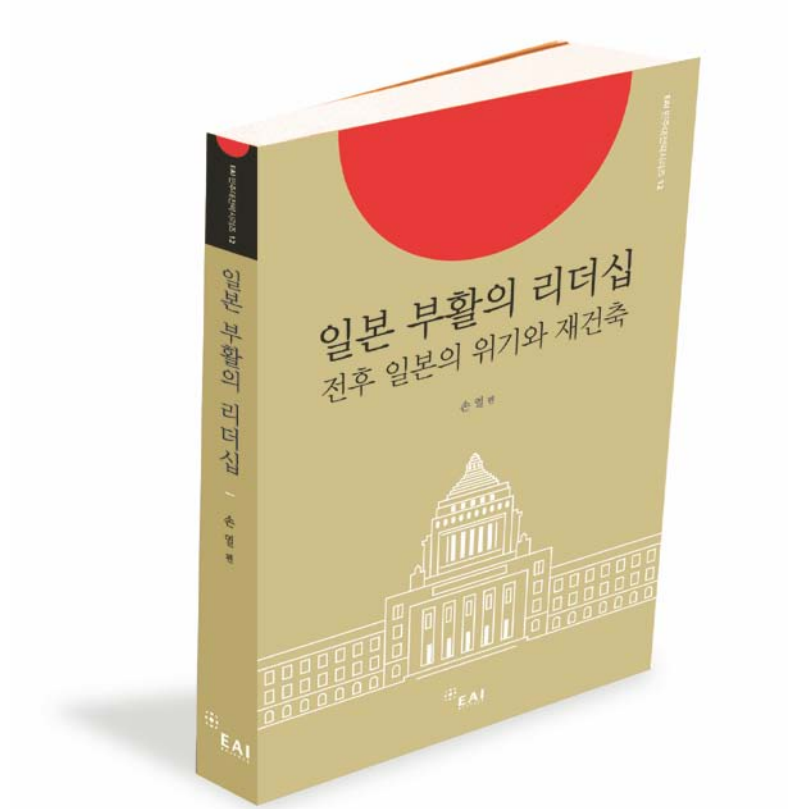


# 9인의 리더십으로 보는 일본의 과거·현재·미래



E A I 민주대전략시리즈 12

## 일본 부활의 리더십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 편자\_ 손 열 ■ 발행일\_2013년 9월 9일 ■ 페이지\_332쪽
- 출판사\_ 동아시아연구원 ■ 가격\_ 16,000원
- ISBN 978-89-92395-38-0 (93340)
- 문의\_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58번지 909호 (을지로 4가, 삼풍빌딩)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출판팀 신영환  
T. 02-2277-1683 (내선 112), F. 02-2277-1684

“성공은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공을 이끌었던 방식은 성공하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식이 되어버린다. 오늘날 일본은 이른바 ‘성공의 역설’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의 회생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개혁을 전제로 한다. 이런 점에서 일본은 현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기능적 리더십(functional leadership)이 아니라 구조와 문화를 바꾸어 미래에 변화를 가져다 주는 변환적 리더십(transformative leadership)을 필요로 한다. 과연 일본은 변환적 리더십 하에 또 한 차례의 개국을 단행할 수 있을까?”

— 서문 중

## 왜 리더십인가?

1991년 소련 제국이 무너지고 냉전체제가 종식되는 순간 일본은 공전의 호황을 마치고 장기적 침체의 길로 접어든다. 정부는 버블경기가 붕괴되면서 초래된 금융부실을 털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야 했으나 미봉책을 거듭하면서 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개혁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부재한 까닭이었다.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높아지면서 일본 국민들은 정치지도자의 실정(失政)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지난 1991년 장기침체에 접어든 이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의 재임기간 5년을 예외로 한다면 17년 동안 15명의 수상이 단명하면서 교체되었다. 자민당 장기집권체제는 무너지고 연립정권시대를 맞았으며 민주당 단독 정권교체, 그리고 3년 만에 자민당의 대승과 정권교체 등 국민들은 정치적 지지를 크게 바꾸어왔다.

이처럼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지지가 급격히 변했던 것은 이념적 선택에서 기인했다기보다는 사양대국 일본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갈망과 실망 때문이었다. 전후 폐허가 된 일본을 강국으로 이끌 수 있었던 데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날 일본의 국민적 요구는 새로운 리더십을 통한 국가의 재건축에 있다. 요컨대 과거의 일본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보아야 한다.

## 변환적 리더십과 일본의 미래

인간의 역사는 구조와 문화에 의해 결정되는 동시에 개인이란 변수에도 크게 좌우된다.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지도자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역사를 쓰곤 한다. 물론 혁명이 아닌 한 리더십은 기존의 제도와 구조를 적절히 활용

하는 능력에 좌우된다. 즉 구조가 주는 기회를 잘 포착하여 자신의 신념이나 상상력과 함께 동원 가능한 자원을 묶어 변화를 이끌어 내는 힘이 중요하다.

오늘날 일본은 이른바 “성공의 역설”을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1945년 패전의 잣더미를 뒤로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하여 경제성장, 국가안보, 민주주의 발전이란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공의 제도에 대한 기억이 향후 일본에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다. 성공은 새로운 현실과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공을 이끌었던 방식은 성공하는 순간 더 이상 새로운 현실에 맞지 않는 구식이 되어버린다.

지난 20년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성공의 역설과 마주하며 변화를 주저하고 결단을 미루면서 미봉책을 거듭한 잃어버린 세월이다. 일본의 회생은 정치적 결단에 의한 개혁을 전제로 한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디플레이션 상태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대담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무역정책을 단행해야 하고, 중국의 부상과 북한 핵개발에 따른 안보위협, 미중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안보 구상을 펼쳐야 하며, 정치 안정을 위한 정치력이 필수적이다. 과연 일본은 변환적 리더십(transformative leadership) 하에 또 한 차례의 개국을 단행할 수 있을까?

## 《일본 부활의 리더십 : 전후 일본의 위기와 재건축》

이 책은 변환을 모색한 일본의 리더 9인을 다루고 있다. 1945년 이래 일본의 현대사 속에서 새로운 정치질서를 건축하고자 경합한 지도자군,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기존 질서의 재건축을 위해 경합한 지도자군 등 9인을 선정하여 그들의 설계도와 설계사상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의 미래를 전망해 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책은 1945년 패전과 냉전의 도래 속에서 자유주의 질서를 새롭게 건축하려는 핵심 설계사로서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공산주의자로서 대항적 질서를 상상한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그리고 성평등을 통해 여성의 주체적 정치참여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이치카와 후사에(市川房枝) 등 3인의 경합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요시다의 승리로 건축된 전후 질서가 성공을 거둔 이래로, 그 성공의 역설과 마주하여 본격적 개혁을 추진한 선두주자로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보수 본류의 황태자 지위를 포기하고 보통국가를 주창하며 이론의 전면적 개혁을 주창한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구조개혁을 내걸고 장수 총리로 대중적 지지를 한몸에 받았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역사적 정권교체로 새 일본을 꿈꾸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제도권 우익의 기수로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오사카를 기반으로 도쿄 중심의 중앙정치를 뒤집으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등 오늘의 리더십으로 이어진다.

과거의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등장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를 이끌어왔다면, 오늘날 일본의 지도자들은 나름의 이념과 세계관에 따라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쟁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들 중 그 어느 누구도 일본 국민들의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웃 국가들을 자극하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일본이 현재의 담보상태를 타개하고 새로운 시대에 다시금 강국으로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책은 전후 일본의 주요 리더십을 분석함으로써 일본 정치리더십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와 미래 일본의 개혁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이웃 국가 일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수 과제이다.

## 목차

- 1장 전후 일본의 건축과 재건축 ■ 손 열
- 2장 요시다 시게루의 전후 구상과 리더십 : “군대 없는 메이지국가” 구상과 “기치국가”의 현실 ■ 남기정
- 3장 미완의 혁명 리더십 : 도쿠다 큐이치 리더십 연구 ■ 박정진
- 4장 전후 일본 민주화운동의 리더십, 이치카와 후사에 : 이념, 정치적 기회구조, 동원전략으로서의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 이지영
- 5장 내재화된 변혁적 리더십 :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치리더십 연구 ■ 최희석
- 6장 선도형 리더십으로서의 “변환적 지도자”: 오자와 이치로의 정치리더십 ■ 이기태
- 7장 탈자민당 정치와 변화의 리더십 : 고이즈미 리더십 연구 ■ 한의석
- 8장 우애와 “제3의 길”: 하토야마 유키오의 이념적 정치리더십 연구 ■ 김젼마
- 9장 21세기의 사카모토 료마?: 하시모토 도루의 정치기업가적 리더십 연구 ■ 박명희
- 10장 남성주의적 자기표현의 매력과 한계 : 이시하라 신타로의 이단아적 정치리더십 연구 ■ 이정환

## 필자약력

**김젠마**\_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교(關西外國語大學) 조교수, 와세다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대학원 객원조교수. 서강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 국제대학원에서 일본지역학 석사를 받은 후, 일본 히토쓰바시대학교(一橋大學)에서 국제관계 전공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히토쓰바시 대학교 전임연구원,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강사 및 와세다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과 대학원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최근 저술로는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アジア地域統合》, “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とニュー・リージョナリズム : 擴散と收斂の相互作用”, “東アジア FTAと國內政治: 韓國の事例から”, “Governance Reconsidered in Japan: Searching for New Paradigms in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日本のFTA政策をめぐる國內政治: JSEPA交渉プロセスの分析” 등이 있다.

**남기정**\_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도쿄대학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박사(2000).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전임연구원, 일본 도호쿠대학 법학연구과 교수,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등을 거쳐 2009년부터 현직에 있다. 전후 일본의 정치와 외교를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문맥에서 분석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며, 최근에는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와 평화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업적으로는 《김대중과 한일관계》(공저, 2012), 《전후 일본, 그리고 낫선 동아시아》(편저, 2011), 《베트남 ‘반전탈주’ 미군병사와 일본의 시민운동 : 생활세계의 전쟁과 평화》(2012), 《중일 국교정상화와 한일관계 : 지연된 갈등》(2011) 등이 있다.

**박명희**\_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지구촌나눔운동에서 근무하였다. 2009년 일본 게이오기주쿠대학(慶應義塾大學) 방문연구원을 거쳐,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논문명: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 : 고령자복지 NPO의 애드보커시(advocacy)를 중심으로”)를 받았다. 연구 논문으로는 “일본 시민사회의 두 가지 인도주의”(공저), “일본의 정당정치 변화와 NPO의 애드보커시”(2011), “일본의 고령자 복지 거버넌스(governance)와 NPO”(2012) 등이 있다.

**박정진**\_ 일본의 쓰다주쿠대학(津田塾大學)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동국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및 정치학으로 학사와 석사를 졸업하고, 2009년에 일본 도쿄대학(東京大學)에서 지역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전임연구원(2000-2002), 도쿄대 총합문화연구과 특임연구원(2008-2009),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Humanities Korea) 연구교수(2010-2013)를 역임했다. 최근 저술로는 《日朝冷戦構造の誕生1945-1965 : 封印された外交史》(저서),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Ⅱ : 脱植民地化編》(공저), “Japan’s Choice: Possibility of a Renewal of National Strategy and Political Reshuffle,” “동아시아 냉전과 일조우호운동의 태동 : 일조협회의 결성을 중심으로,” “북한의 대일접근과 북송문제,” “도쿄도의 에스닉 정책과 재일조선인 시책” 등이 있다.

**손 열**\_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겸 원장. 시카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교수,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노스캐롤라이나대학 방문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 일본정치경제, 동아시아지역주의, 글로벌 거버넌스이다. 현대일본학회 회장과 한일신시대공동연구 위원을 지내고,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립외교원 자문위원, 동북아역사재단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근 연구업적으로는 “Attracting the Neighbors: Soft Power Competition in East Asia,” “Securitizing Trade: The Case of US-Korea FTA,” “Japan’s New Regionalism: China threat, Universal Values, and the East Asian Community” 등이 있다.

**이기태**\_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박사후과정 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慶應義塾大學)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연구로는 “ニクソン政権の在韓米軍削減をめぐる韓米交渉 : 朴正熙政権の政策轉換を中心に,” “カーター政権の在韓米軍撤退政策と日韓安全保障協力 : 日韓議員安全保障協議會の設立を中心に,” “데탕트 말기 한일안보협력의 모색 : 한일 의원 안전보장 협의회의 설립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이정환**\_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저술로는 “고이즈미 정권하의 지역개발정책 개혁의 이중구조,” “대외적 투자유치 대 내재적 네트워크 강화,” “일본 민주당 정권의 소비세 인상으로의 정책 전환과 분열” 등이 있다.

**이지영**\_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하고 일본 츠크바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술로는 《지역통합의 국제정치경제》(공저), “일본의 이주자 정책이 여성 이주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의 생활정치이념과 복지정책”, “일본의 고용평등 정책과정 분석 : 가치·신념, 여성대표성, 제도적 구조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최희식**\_ 국민대 국제학부 조교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게이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저술로는 《歴史としての日韓國交正常化Ⅱ : 脱植民地化編》(공저), 《박정희 시대 한일관계의 재조명》(공저), “일본에서의 열린 지역주의(open regionalism)개념 형성과정 연구”, “일본 분점국회의 교착상태에서 본 양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현대 일본의 아시아 외교전략 : 내재적 접근에서 외재적 접근으로”, “전후 한일관계의 구도와 민주당 정부하의 한일관계” 등이 있다.

### 한의석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강의전담교수.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및 올바니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7년 7월-2008년 7월 도쿄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쳐, 2010년 남가주 대학교에서 일본의 지역 간 격차를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 논문으로 “고이즈미의 등장과 자민당 정책변화 : 도시유권자와 선거정치” <한국정치학회보>(2011)등이 있다.